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18번

Dear Readers,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our magazine's column A Better Way to Live.

Your support has allowed the column to grow steadily, gaining widespread recognition. We appreciate the encouragement you have shown throughout its run.

However, we would like to share an important update.

Due to the writer's recent health problems, the column will take a one-month break.

This time has been set aside to allow the writer to recover.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during this pause.

The column will return next month with renewed energy and fresh perspectives.

독자 여러분께, 우리 잡지의 칼럼 '더 나은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그 칼럼은 광범위한 인정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재 기간 내내 여러분이 보여주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가의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그 칼럼은 한 달간 휴재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작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단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칼럼은 다음 달에 새로워진 에너지와 신선한 관점들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19번

Having been guided to a small desk surrounded by dividers, I sat.

It was my first day. Everyone in the office seemed busy and no one even looked at me.

It felt as if no one knew I was there.

I wanted to ask someone a question, but there wasn't anyone I could possibly talk to.

I felt invisible. After lunch, I returned to my desk and found a bouquet of flowers on my desk.

Then, a coworker at the desk next to mine came over.

She said she couldn't greet me earlier because of an urgent issue that morning.

She added that she was excited to work with me.

She introduced me to the rest of the team, and I received warm greetings from everyone.

Her kindness made me feel truly accepted.

칸막이로 둘러싸인 작은 책상으로 안내받아 나는 앉았다. 그날은 나의 첫 출근날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바빠 보였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아무도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점심 후에 내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내 옆 책상의 동료 한 명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날 아침 긴급한 일 때문에 일찍 나에게 인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나를 나머지 팀원들에게 소개했고,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친절은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0번

Some argue that if science is embedded in culture and bound up with art and philosophy, if it is a human activity, then this undermines science's claims to be genuine knowledge. At best, science is no better than religion, just another practice with its own subjective methodology.

But why say this? Just the opposite is true.

In order to hit the target with my bow and arrow, I need to do something, to take aim and concentrate. The fact that I am a being with a body, embedded in a culturally rich situation, is no obstacle to my sometimes succeeding.

In fact, it is that embedding that supplies me not only with the physical means —the bow and the arrow, and the training —but also with the motivation to hit the target in the first place.

Science and perception too are similarly human activities that aim at secure knowledge of the world.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1번

A brilliant musician can in fact be an innovator without strictly speaking being an inventor.

In such cases, those who expect "great discoveries" will be disappointed.

Let there be no doubt: the eager need for novelty, so characteristic of the escalating modernist auction, involves the idea that a musical act is a thing, in which case, music is no more than technique, technique alone.

And just as technique is the consequence of an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with each automobile or kitchen appliance show introducing what is new and improved in comparison to last year's —so never-ending progress shall be the law of music. Farther, faster, more powerful!

In this arms race, each new music, breaking its predecessor's records, offers itself as the last thing in modernity; and each musician, forcing predecessors into the category of the unfashionable and outmoded, claims the patent on the invention.

In an era where pastich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have become quasi-universal, musicians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

일부 사람들은 만약 과학이 문화에 내재되어 있고 예술과 철학과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활동이라면, 이것이 과학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주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기껏해야 과학은 종교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자신만의 주관적인 방법론을 가진 또 다른 관행일 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정반대가 사실이다.

내 활과 화살로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는 조준하고 집중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문화적으로 풍부한 상황에 내재된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내가 때때로 성공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다.

사실, 나에게 활과 화살, 그리고 훈련과 같은 물리적 수단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물을 맞추려는 동기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내재성이다.

과학과 지각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뛰어난 음악가는 엄밀히 말해서 발명가가 되지 않고도 사실 혁신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위대한 발견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자: 고조되는 현대주의 경매의 매우 특징적인 참신함에 대한 열렬한 욕구는 음악적 행위가 하나의 사물이라는 관념을 포함하며, 그 경우에 음악은 기술, 오직 기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치 기술이 무한한 완성 과정의 결과인 것처럼—각각의 자동차나 주방기기 전시회가 작년의 것과 비교하여 새롭고 개선된 것을 소개하는—그렇게 끝없는 진보가 음악의 법칙이 될 것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이 군비 경쟁에서, 각각의 새로운 음악은 전임자의 기록을 깨면서 스스로를 현대성의 최신 것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각 음악가는 전임자들을 유행에 뒤 떨어지고 구식인 범주로 강제로 밀어 넣으면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다.

'과학적 탐구'의 모방작들이 준-보편적이 된 시대에, 음악가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연구자들'이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빚지고 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2번

We often express problems interrogatively. Instead of commanding you to find my keys, I might ask you where they are. But "Where are my keys?" is a problem hiding in question clothing. To see this, consider some possible answers. "Not on the surface of the sun" truthfully gives the location of my keys, as does, "Wherever your keys are." Nonetheless, these are bad answers, and they are bad precisely because they do not help me achieve the goal — leaving the house, opening a locked door — to which keylessness constituted an obstacle. Consider the reply "They are in your room." This is a good reply if you have a small, tidy room, but if your room is large and messy, you might need the location more clearly specified. Whether or not it is a good reply is a function of whether or not it solves the problem. Indeed, "Here, take mine" could be a good reply to "Where are my keys?" if what is needed is to leave the house quickly. A good reply doesn't need to offer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re are my keys?" as long as it resolves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우리는 종종 문제를 의문문으로 표현한다. 내 열쇠를 찾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나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열쇠가 어디 있지?"는 질문의 옷 안에 숨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답변들을 고려해보라. "태양 표면 위가 아니야"는 내 열쇠의 위치를 사실대로 알려주며, "당신의 열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나쁜 답변이며, 그것들이 나쁜 이유는 정확히 열쇠가 없는 것이 장애물이 되었던 목표 — 집을 나가기, 잠긴 문을 열기 — 를 달성하도록 나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당신 방에 있어요"라는 답변을 고려해보라. 이것은 당신이 작고 깔끔한 방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답변이지만, 만약 당신의 방이 크고 지저분하다면, 위치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닌지의 함수이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빨리 집을 나가는 것이라면 "여기, 내 것을 가져가"는 "내 열쇠가 어디 있지?"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좋은 답변은 집을 나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내 열쇠가 어디 있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3번

Young employees agree that AI has more positive impact with the dynamics of the workforce, though there are major concerns on job loss and being left behind.

While AI has the potential to automate certain jobs, it is also giving rise to new career opportunities and demands.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has led to a sudden increase in the need for professionals who can effectively manage and get the most out of AI systems.

Moreover, soft skills such as innovative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the capability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 gaining greater recognition.

In the age of AI, continuous learning has become an essential quality for professionals in the workplace.

The ever-evolving technological landscape necessitates employees to consistently update their skills, acquire new knowledge, and adapt to the dynamic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Only reskilling and adaptability can help resolve the workforce of the future.

Implanting a culture of ongoing learning by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that encourages continuous learning and skill development should be a main priority for each organization.

젊은 직원들은 일자리 상실과 뒤처지는 것에 대한 주요 우려가 있지만, AI가 노동력의 역학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한다.

AI가 특정 일자리를 자동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것은 또한 새로운 직업 기회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AI 기술의 증가하는 적용은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학제 간 협력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더 큰 인정을 받고 있다.

AI 시대에, 지속적인 학습은 직장에서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적 환경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업무 환경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할 것을 필요로 한다. 오직 재교육과 적응력만이 미래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 문화를 심어주는 것은 각 조직의 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4번

Something too domesticated isn't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it evaporates altogether — we just take it for granted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

And perhaps translation is an art especially well suited for this task: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accumulates imitations and clichés and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that may well bury it, translations of that work free it from its stodgy fame and make the stone stony again, precisely by putting it in another language.

A bad text is one that, in Berman's terms, lacks "native strangeness" —and when you translate it, nothing happens.

The translation of a true work of art is significant because it reinforces and enhances qualities already inherent in it: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but the mode of existence by which a work reaches us as étrange" (translated by Heyvaert as "foreign," but I'm not sure about that).

As Wilson put it, translation makes the work "seem more strange, and newly strange."

너무 길들여진 무언가는 실제로 더 접근 가능하거나 다가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증발해버린다 — 우리는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단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번역은 이 과제에 특히 잘 맞는 예술이다: 위대한 문학 작품이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는 모방과 진부한 표현들, 그리고 학문적 연구와 분석과 학습 가이드의 집합체를 축적하는 동안, 그 작품의 번역은 정확히 그것을 다른 언어에 놓음으로써 지루한 명성에서 해방시키고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든다.

나쁜 텍스트는 Berman의 용어로 "고유한 낯설"이 부족한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번역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은 이미 그 안에 내재된 특성들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번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작품이 étrange로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존재의 방식이다" (Heyvaert에 의해 "foreign"으로 번역되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Wilson이 말했듯이, 번역은 작품을 "더 낯설게 보이고, 새롭게 낯설게" 만든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6번

Douglass Houghton was an American geologist and physician born in New York in 1809.

He enrolled in the Rensselaer Scientific School, where he earned a degree in 1829.

Amos Eaton, a former teacher of Houghton, offered a position as an assistant professor for chemistry and natural history to Houghton in 1830.

That same year, he was recommended by Eaton to travel to Detroit, where soon he became a popular science lecturer.

While pursuing his academic career, Houghton also studied medicine and earned his license in 1831.

His career reached a major turning point in 1837, when he was appointed Michigan's first State Geologist.

In 1842, Houghton was elected as Mayor of Detroit, a position he was at first reluctant to accept.

Upon hearing the advice of friends, he accepted the mayor's position and served two terms.

His contributions to science and public service left a lasting impact on Michigan's development.

더글러스 호턴은 1809년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의 지질학자이자 의사였다.

그는 렌슬러 과학 학교에 등록하여 1829년에 학위를 받았다.

호턴의 이전 선생님인 에이모스 이튼은 1830년에 호턴에게 화학과 박물학 분야의 조교수 직책을 제안했다.

같은 해에 그는 이튼의 추천으로 디트로이트로 가게 되었고, 곧 그곳에서 인기 있는 과학 강연자가 되었다.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동안 호턴은 또한 의학을 공부하여 1831년에 면허를 취득했다.

그의 경력은 1837년 미시간 주 최초의 주 지질학자로 임명되면서 주요 전환점에 도달했다.

1842년에 호턴은 디트로이트 시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그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기를 꺼려했던 직책이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그는 시장의 직책을 받아들여 두 번의 임기를 역임했다.

과학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의 공헌은 미시간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9번

Darwin understood that since inheritance is conservative, it is in the nature of the organism to impose itself on the surroundings, producing many highly similar but variable offspring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He further recognized that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the organism imply reproductive overrun, with organisms routinely producing more offspring than there are resources to support them. The need to survive implies that the capacity for using necessary resources must complement the opportunity to use them. But needs and opportunity do not perfectly match. Inheritance produces the capacities for exploiting the surroundings, but in a way that is indifferent to the surroundings. Offspring cannot anticipate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much less alter themselves in ways that are suitable to any changes in those conditions. While it is true that organisms can express some amount of flexibility in their form and function in response to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these adjustments are minor compared to the constraints of inheritance. As a result, not every living thing can live everywhere.

다윈은 유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생물의 본성은 조건의 특성과 무관하게 주변 환경에 자신을 부과하며 매우 유사하지만 다양한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생물 본성의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들이 생식 과잉을 의미하며, 생물들이 일상적으로 그들을 부양할 자원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을 인식했다. 생존의 필요성은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그것들을 사용할 기회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필요와 기회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유전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을 생성하지만, 주변 환경에 무관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자손은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의 특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하물며 그러한 조건의 어떤 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더욱 없다. 생물들이 직접적인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 형태와 기능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정들은 유전의 제약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모든 생물이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0번

Every time you conceptualize, categorize, and put a name on something that is not a proper name, you abstract away from its particularities.

Picture daisies and clover flowers in a lawn.

Those four ordinary nouns leave out their differences.

"Flower" co-categorizes the white and yellow types with the beige ones, and all the many other sorts to be found elsewhere.

"Lawn" neglects the varieties of grass and all the nongrassy plants that are there.

Zoom in, and you will find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verywhere.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alike, and yet they present to a quick glance a carpet patterned uniformly enough.

For most practical purposes, the differences can be ignored —making a daisy chain, sunbathing, and the like.

Not so, however, for the groundskeeper of a sports stadium, where the constituent grasses and their stages of growth really do matter.

And to an infinite mind, with infinite memory, each blade of grass, with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need not be co-categorized with all its fellows.

Each could have its own name, as you yourself do.

고유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며, 이름을 붙일 때마다, 당신은 그것의 특수성으로부터 추상화하게 된다.

잔디밭에 있는 데이지와 클로버 꽃들을 그려보라.

그 네 개의 평범한 명사들은 그것들의 차이점들을 생략한다.

"꽃"은 흰색과 노란색 종류를 베이지색 종류와,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다른 많은 종류들을 함께 범주화한다.

"잔디밭"은 그곳에 있는 잔디의 다양한 종류들과 모든 비잔디 식물들을 무시한다.

확대하면, 당신은 모든 곳에서 개별성과 독특함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두 데이지도, 어떤 두 클로버도 정확히 같지 않지만, 그러나 빠른 일견에는 충분히 균일하게 무늬가 있는 카펫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실용적 목적, 즉 데이지 화환 만들기, 일광욕,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차이점들이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의 구장 관리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곳에서는 구성하는 잔디들과 그것들의 성장 단계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무한한 기억력을 가진 무한한 정신에게는, 각각의 풀잎이 그 자신의 독특한 생애사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동료들과 함께 범주화될 필요가 없다.

각각은 당신 자신이 그러하듯이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1번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These words, spoken with much authority to senior fine arts majors, are the kind that those who create art are unable to ignore.

We worry about this idea that if we are not engaged in commerce, then we are not professional; and if we are not professional,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and yet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visual artists measure canvases completed all in an effort to appear "productive,"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is then seen as hopelessly romantic and nearly indefensible.

Of course one can engage in art, but it better be for money, for that is the only marker of success. But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merely an old talker with a title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 that had, in fact, labeled him as "successful"?

In Western cultu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 and so the artist is legitimized by their ability to earn money. Professional art, then, is inherently capitalist.

"상업 없는 예술은 취미이다."

고학년 미술 전공자들에게 많은 권위를 가지고 말해진 이 말들은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이다.

우리는 만약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부를 수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에 대해 걱정한다.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그 본질상 수량화될 수 없거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페이지와 단어를 측정하고 시각 예술가들은 완성된 캔버스를 측정하는데, 이는 모두 "생산적으로" 보이고 창작하려는 이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예술을 위해 창작한다는 개념은 그러면 절망적으로 낭만적이고 거의 변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사람은 예술에 종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돈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의 유일한 표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교수의 선언은 단지 직함을 가진 나이 든 말하는 사람이 사실상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던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무심코 반복하는 것이었는가?

서구 문화에서는 전문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술가는 돈을 버는 능력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면 전문적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2번

We cannot make sense of the facts of the past unless they are embedded in stories, and stories, of necessity, are not neutral collections of facts. Stories are necessarily selective, subjective and attractive.

The shortest of stories is the result of choices, conscious and unconscious.

Stories influence subtly, invest power, make hidden moral judgement and always distort by omission,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This is why all educated citizens need not just facts about the past but history as a discipline.

For we need to understand why history takes the form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s.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is not the same as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stories; it requires familiarity with abstract generalizations,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and an ability to make use of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s.

Such disciplinary knowledge is not the same as 'everyday' knowledge and it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informally.

우리는 과거의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 담기지 않는 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사실들의 중립적인 모음이 아니다.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며 매력적이다.

가장 짧은 이야기조차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이야기는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 권력을 부여하며,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략에 의해 항상 왜곡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육받은 시민들이 과거에 관한 단지 사실들만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학술적 설명에서 왜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규율 있는 역사적 논증은 비공식적인 이야기 듣기와 말하기와 같지 않다; 그것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추상적 일반화에 대한 친숙함, 이전 학술적 담론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증거, 논증의 스타일, 분석적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한 학문적 지식은 '일상적인' 지식과 같지 않으며 비공식적으로 습득될 가능성이 없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3번

All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forms of spatial choreography that guides action; space facilitates or prohibits, encourages or prevents, invites or inhibits.

This choreography predetermines patterns of movement and behavior, but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imageries, emotions and feelings.

A sensitive and empathic designer intuits human behavior and desire, and this intuitive architectural scripting resonates with the actual user/occupant's natural and instinctual needs and intentions.

While designing a house, the designer lives, uses and feels the nonexistent house in his imagination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A correctly placed window is located exactly where the occupant wishes to look out into the garden, or where daylight is needed.

The stairway is located where the dweller wishes to enter the floor above or below.

Successful architecture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 for its use, as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n a wordless manner.

A profound building is an extension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모든 건축 구조는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 안무의 형태이며, 공간은 촉진하거나 금지하고, 장려하거나 방지하며, 초대하거나 억제한다.

이 안무는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미리 결정하지만, 또한 경험적 특성, 지각, 심상, 감정과 느낌을 안내한다. 민감하고 공감적인 디자이너는 인간의 행동과 욕구를 직관하며, 이 직관적인 건축 대본은 실제 사용자나 거주자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 및 의도와 공명한다. 집을 설계하는 동안, 디자이너는 미래 거주자를 대신하여 상상 속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집에 살고, 사용하고, 느낀다.

올바르게 배치된 창문은 거주자가 정원 쪽으로 밖을 내다보고 싶어 하는 곳이나 자연광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위치한다.

계단은 거주자가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에 위치한다.

성공적인 건축은 그 구조와 용도를 말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사용을 위한 설명서나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다. 심오한 건물은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확장이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4번

Think of the totality of your interactions where behavioral and interactional data is recorded and collected.

All of those traces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It is accumulated over the long history of your recorded actions and choices, built up from traces left on everything from social media to credit reporting agencies, shopping websites and loyalty programs, courthouses, social welfare agencies, pharmacies, and the content of emails and chats.

It incorporates whatever value is in your social network, along with synthetic measures of your trustworthiness or accountability in the world. It is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and, of course, it is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or condensed down to a single quantity. But in principle it might be. It might take the form of some vector of information that summarizes your situation and value across many features — something that compactly represents your position in the multidimensional space of classification situations. It would, in short,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5번

Morality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rational human beings for more than one reason.

First of all, it is human beings who are gifted with the faculty of reasoning; secondly, human beings have free will to choose what is the best for them among many alternatives.

To think and reason about things i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human mind as has been noted by all philosophers since Descartes.

It is because of this capacity to think and weigh the pros and cons of actions that human beings can plan for their future and make sufficient effort to achieve their chosen goals in life.

Besides, human beings make free choices in all given situations, except where they are constrained to act.

Thus freedom is a basic feature of human life which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행동 및 상호작용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당신의 상호작용 전체를 생각해 보라.

그 모든 흔적들은 일종의 자원을 나타낸다.

그것은 소셜 미디어에서부터 신용 평가 기관, 쇼핑 웹사이트와 로열티 프로그램, 법원, 사회 복지 기관, 약국, 그리고 이메일과 채팅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들로부터 쌓여, 당신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다.

그것은 당신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떤 가치든, 그리고 세상에서의 당신의 신뢰성이나 책임성의 종합적 측정치를 포함한다.

그것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물론, 모두 한 곳으로 모아지거나 단일한 양으로 압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많은 특징들에 걸쳐 당신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하는 어떤 정보 벡터의 형태, 즉 분류 상황들의 다차원적 공간에서 당신의 위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무언가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요컨대, 그것은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특징짓게 될 것이다.

도덕성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이성적인 인간과 연관되어 왔다.

우선, 추론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인간이며, 둘째, 인간은 많은 대안들 중에서 그들에게 최선인 것을 선택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데카르트 이래로 모든 철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온 것처럼 인간 정신의 주요 기능이다.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고 삶에서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저울질하는 이러한 능력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은 행동하도록 제약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6번

Daniel Dennett argues that one benefit of having moral considerations in our conceptual repertoire is that they can serve as conversation-stoppers: their value is to bring deliberations to a close.

We are rational creatures, always able to ask for justification, and this is a trait that has served us well in many contexts.

The problem is that upon receiving a perfectly good answer we can always sensibly respond "Okay, but what justifies that?" —and we can potentially do so endlessly, never coming to a decision, forever hesitant and doubting, undone by our own rational capacity.

This is potentially as much a problem for our own private deliberations as for our public interpersonal ones.

Dennett suggests that it is useful to have "consideration-generator-squelchers": items that, once introduced, stop any further deliberation in its tracks.

"That would be morally wrong!" would appear to work in this manner.

Once the claim is accepted then there is no need or room for seeking further justification: the action mustn't be done, even if it is tempting, and that's all there is to it.

Daniel Dennett는 우리의 개념적 레퍼토리에 도덕적 고려를 갖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그것들이 대화 종결자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들의 가치는 숙고를 종결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정당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이성적인 생물이며, 이것은 많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잘 도움이 되어온 특성이다.

문제는 완벽하게 좋은 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합리적으로 "좋아,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응답할 수 있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끝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결코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주저하고 의심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우리의 공적인 대인 관계의 숙고에 대해서만큼 우리 자신의 사적인 숙고에 대해서도 그만큼 문제이다.

Dennett는 "고려-생성-억제자", 즉 일단 도입되면 어떠한 추가적인 숙고도 즉시 멈추는 항목들을 갖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한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될 것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가적인 정당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필요나 여지가 없다: 그 행동은 비록 유혹적일지라도 행해져서는 안 되며, 그것이 전부이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7번

When the concept of expansion gets mentioned, it is difficult to resist the urge to picture the Universe with a finite and growing boundary.

Our natural instinct is to wonder what the Universe could possibly be expanding into.

Unfortunately, the only answer I can give you is the one that I am sure will satisfy you the least, but let me say it anyway: the Universe expands into nothingness.

To be more accurate, the Universe does not expand into anything.

It simply expands by itself within itself.

In contrast to our inflating balloon or, say, a pipe leak that causes gas to spread into a room that exists in its own right, our expanding Universe is not spilling into another separate entity, nor even another dimension.

It is the structure of space and time that stretches, a structure that has always existed, at least since the Big Bang.

This structure or fabric of space and time is elastic and malleable.

Just as it can pull us apart as we fall inside a black hole, it can also expand and cause anything and anyone embedded in it to move farther apart.

팽창의 개념이 언급될 때, 유한하고 성장하는 경계를 가진 우주를 그려보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우주가 무엇 속으로 팽창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당신을 가장 덜 만족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말하겠다: 우주는 무(無) 속으로 팽창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는 어떤 것 속으로도 팽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팽창한다.

우리의 부풀어 오르는 풍선이나, 예를 들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으로 가스가 퍼지게 하는 파이프 누출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팽창하는 우주는 또 다른 분리된 실체 속으로, 또는 심지어 다른 차원 속으로도 쏟아지지 않는다.

늘어나는 것은 시공간의 구조이며, 적어도 빅뱅 이후로 항상 존재해 온 구조이다.

시공간의 이 구조 또는 직물은 탄력적이고 유연하다.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팽창하여 그 안에 내재된 어떤 것과 누구든지 더 멀리 떨어지도록 야기할 수 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8번

Scholars have demonstrated that the gestures hearing people produce while they are speaking are systematically made at the same time with speech such that language and gesture must be considered "co-expressive".

This tightly integrated pairing of language and gesture enables speakers to conceptualize and formulate their thoughts in terms of both the "categorical" requirements of language, and the "imagistic" possibilities of gesture.

For example, in describing an event, one must decide if the event has been completed or is ongoing if the language being spoken at that moment has a verbal affix for each meaning and one or the other must be chosen.

This kind of choice is characteristic of language as a semiotic system.

According to McNeil and Duncan, gesture is different from language in that it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with such choices.

Instead, it offers a kind of glue, which helps unite linguistic elements in a larger semiotic expression, which, as a whole, shares important characteristics with the represented objects.

In this view, speech and gesture are not redundant nor is one a "translation" of the other. Rather, the minimal processing unit for the expression of thought is a combination of the two: it is "imagistic-categorical" in nature.

학자들은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 만드는 제스처가 말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언어와 제스처는 '공동 표현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언어와 제스처의 이러한 긴밀하게 통합된 결합은 화자들이 언어의 '범주적' 요구사항과 제스처의 '이미지적' 가능성 둘 다의 측면에서 그들의 생각을 개념화하고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건을 묘사할 때, 그 순간 말해지고 있는 언어가 각 의미에 대한 동사 접사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그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 결정해야 하며 둘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의 특징이다.

McNeil과 Duncan에 따르면, 제스처는 화자에게 그러한 선택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와 다르다.

대신에, 그것은 더 큰 기호적 표현 안에서 언어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접착제를 제공하며, 전체로서 표현된 대상들과 중요한 특성들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과 제스처는 중복되지 않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의 '번역'도 아니다.

오히려, 사고의 표현을 위한 최소 처리 단위는 둘의 조합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미지적-범주적'이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9번

To acquire expert knowledge, one needs to become a member of the relevant group of knowledge bearers, for which I will use the term "epistemic communities."

A newcomer learns from experts and is socialized into the common practices of the relevant epistemic community.

Often there are admittance processes, combined with tests of a candidate's abilities.

In the premodern era, epistemic communities were often kept secret, with strict tests of loyalty for new members, not least because of fears that specialized knowledge would fall into the "wrong hands."

Some traces of these older practices may still be present today, but on the whole, the ideal has shifted to openness among the members of epistemic communities, and also, to some extent, toward outsiders.

Nonetheless, for most outsiders even completely transparent practices do not lift the veil behind which such forms of knowledge are hidden—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and acquisition of skills, which often take many years,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 that is being shared.

Other, more ac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make certain forms of knowledge as "accessible" as is realistically possible.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 보유자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인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새로 온 사람은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관련 인식 공동체의 공통 관습 속으로 사회화된다.

종종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시험과 결합된 입회 과정이 있다.

전근대 시대에 인식 공동체는 종종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충성심 시험이 있었는데, 특히 전문 지식이 "잘못된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래된 관습의 일부 흔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상은 인식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개방성으로,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는 외부인들을 향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는 심지어 완전히 투명한 관습도 그러한 형태의 지식이 숨겨져 있는 베일을 걷어내지 못하며, 종종 수년이 걸리는 관련된 훈련과 기술의 습득 없이는 사람은 단순히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

특정 형태의 지식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더 적극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40번

Carstensen's (1995)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looks at individuals' goals as a lifelong process that strengthens and matures with ageing. In relation to his motivational conceptual framework, Higgins (2014) proposes that motivation may even attain its highest levels in the later stages of life, subject to the balance and organisation of one's goals in relation to life prioritie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more recent research looks deeply into additional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in later adulthood, particularly emphasising the role of self-worthiness, and the overall positive impact of developing a well-rounded self-view in life course transitions. Together, these studies suggest that both goal alignment and a positive self-perception are crucial for enhancing motivation and overall well-being in later life.

In fact, third-age learners exhibit a higher degree of selectivity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which goals to pursue and how to allocate their resources towards those specific priorities. Older adults demonstrate a stronger sense of life purpose and self-fulfilment.

They do it their way, and their way is an accumulation of winning and personalized combinations in effectively relating motives all together at different degrees according to their life contexts.

Carstensen의 (1995)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은 개인의 목표를 노화와 함께 강화되고 성숙하는 평생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의 동기 부여 개념적 틀과 관련하여, Higgins (2014)는 동기가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개인 목표의 균형과 조직에 따라 삶의 후반 단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기초 위에 구축하여, 더 최근의 연구는 후기 성인기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깊이 살펴봄, 특히 자기 가치의 역할과 생애 과정 전환에서 균형 잡힌 자아관을 발전시키는 것의 전반적인 긍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함께, 이러한 연구들은 목표 정렬과 긍정적인 자아 인식 모두가 노년기에 동기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시사한다.

사실, 제3연령 학습자들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결정하고 그러한 특정 우선순위를 향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한 더 높은 수준의 선택성을 보여준다. 노년층은 삶의 목적과 자기 실현에 대한 더 강한 감각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며, 그들의 방식은 삶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동기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성공적이고 개인화된 조합의 축적이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41-42번

Writing of a commentary by Lenin on Leo Tolstoy, the critic Pierre Macherey agrees with Lenin's claim that Tolstoy's work holds up a mirror to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Yet this mirroring, Macherey argues, is a complex affair, by no means a direct reflection of the world as it stands.

If literary works are in some sense mirrors, they are mirrors marked by flaws and blind spots.

In fact, they are as significant for what they don't reflect —for their exclusions and distortions —as for what they do.

There are things which do not and cannot figure in the mirror —in the case of Tolstoy, certain contradictions in society of which he could not be conscious.

Even so, the mirror makes us aware of these absences, which thus become faintly present.

It is as though it allows us to see more clearly what isn't there.

There is also no reason to assume that what we see in the mirror must form a coherent whole.

On the contrary, it may be in pieces and discordant.

'The mirror is doubtless defective; the outlines will sometimes be disturbed; the reflection faint or confused', remarks George Eliot in Adam Bede, reproaching the kind of naive realism which holds that art (or mirrors) always tell it like it is.

A mirror offers us a version of reality, but it does so from a viewpoint which cannot be captured in the mirror itself.

And because this viewpoint is invisible to us, we might be tempted to take it as beyond question.

레오 톨스토이에 관한 레닌의 논평을 쓰면서, 비평가 피에르 마슈레는 톨스토이의 작품이 1905년 러시아 혁명에 거울을 비춘다는 레닌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마슈레는 이 반영이 복잡한 문제이며, 결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문학 작품들이 어떤 의미에서 거울이라면, 그것들은 결함과 사각지대로 특징지어지는 거울이다.

사실, 문학 작품들은 그것들이 반영하는 것만큼이나 반영하지 않는 것, 즉 배제와 왜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거울 속에 나타나지 않고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경우 그가 의식할 수 없었던 사회의 특정 모순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재들을 인식하게 만들며, 그것들은 그래서 희미하게 존재하게 된다.

마치 거울이 우리가 거기에 없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이 일관된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그것은 조각나고 불협화음일 수 있다.

조지 엘리엇은 애덤 비드에서 '거울은 의심할 여지없이 결함이 있으며, 윤곽은 때때로 흐려질 것이고, 반영은 희미하거나 혼란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예술(또는 거울)이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순진한 사실주의를 비난한다.

거울은 우리에게 현실의 한 버전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거울 자체 안에서 포착될 수 없는 관점으로부터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관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유혹받을 수 있다.